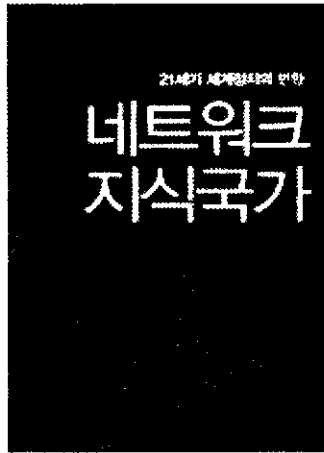


서평

# 『네트워크 지식국가』 - 하영선·김상배 編



새천년과 함께 시작된 '사이버세계 정치 연구회(이후 정보세계 정치연구회로 개칭, 회장 하영선 교수)'가 7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엮은 책이 『네트워크 지식국가』이다. 일반 독자들에게

게는 물론 정치학자들에게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부제로 나와 있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대한 시론적인 차원에서 학문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환의 요체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은 '네트워크 지식국가'라고 편자들은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21세기적 변환을 설명하기 위하여 총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1세기의 변환을 이해하기 위한 전사(前史)로서 1부에서는 서세동점의 시점인 19세기말과 20세기 전반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국민국가(강국)의 전파와 변환'을 국가이념(강성국)과 군사국가(김현철), 경제국가(손영)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1부에 기초하여 근대군사국가의 변환을 군사(이상현), 테러(신성호), 외교(전재성)의 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3부에서는 근대경제국가의 변환을 무역(조화순), 금융(이왕

후), 생산(배영자)의 세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4부에서는 군사와 경제 측면의 변환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와 세계정치 자체의 변환을 - 근대지식국가의 출현과 지속성과 변화(최정운), 생명공학과 메타거버넌스(조현석), 문화제국(김상배), 문화세계정치(민병원), 세계화시대의 네트워크국가(민병원) 등의 경험적·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국민국가의 양대 축인 국민/민족과 국가의 이완을 배경으로 하여 영토적 경계의 안과 밖에서 출현하는 개방형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로 부상하는 국가"(50쪽)로 정의된다. "지식과 네트워크의 복합적 부상에 대응하여 자기조직의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국가의 미래적 모습"(51쪽)이 네트워크 지식국가이다. 근대라는 인식론과 국가라는 존재론을 뛰어넘는 네트워크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물질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을 중요한 권력자원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계정치의 변환을 개념화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먼저 개념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금까지의 세계정치의 모습을 1부에서 적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2부와 3부에서는 지나친 개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높은 추상성과 현실감의 약화라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군사국가와 경제국가의 변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4부에서는 경험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는 생명공학(12장)과 실리콘우드(13장)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념화를 제외하고는 시론차원에서의 개념화

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11장에서는 지식이 근대 국가의 형성과 유지에서 어떠한 위상변화를 겪어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일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네트워크와 문화의 관계를 다룬 두 장(14, 15장)은 국내 연구가 인천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논문으로 판단된다.

이 책을 읽으며 아쉬웠던 몇 가지를 적으며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이 보다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개념 정의를 하는 이유가 보다 설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네트워크(국가)로 정의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와 지식의 관계망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속성의 지식이 보다 네트워크 지향적인지 등의 지식과 네트워크의 커플링(coupling)과 디커플링(decoupling)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이다. 셋째, 국가가 네트워크화 한다는 것과 일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정치의 (예를 들어 선거, 민주성, 정당성, 사회통합 등)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본원적으로 상충적이며 갈등적인 관계라면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장치는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논의가 어떻게 매력국가(혹은 매력정치)의 논의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합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세계 정치연구회의 후속 작업이기도 하면서 한국의 정치학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생각된다.

유석진(정치76,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